

여성 서사 속 기지(춘)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 강신재 · 박완서 · 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

차미령**

— 목 차 —

1. 뭉 없는 이들의 뭉: 기지춘 여성과 서발턴 재현
2. 재현의 탈코드화와 친밀성 거래의 이면: 강신재 · 박완서 소설
3. 교차하는 서발턴리티와 ‘안 들리는 것을 말하기’: 강석경 소설
4. 문학과 증언 사이: 이분법의 경계에 서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여성 서사에 나타난 기지(춘)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서발턴 재현의 문맥에서 검토한다. 강신재, 박완서, 강석경 소설을 중심으로 서발턴 여성이 어떠한 재현의 코드에 의해 혹은, 반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대 한국 여성의 ‘말할 수 없음’이 서발턴리티와 어떻게 절합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먼저, 박완서는 미군 부대 근처의 여성이 ‘성매매에 처해지는’ 상황을 설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방종의 결과라는 관념을 탈코드화한다. 아울러 이들이 가족 내 존재라는 사실은 모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에 균열을 가한다. 한편, 강신재 소설은 여성이 겪는 고통과 분노를 서발턴 여성인물을 경유하여 표출한다. 소설에서 경제적 조건에 의한 노동이라는 사실은 비가시화되거나, 성적 관계가 곧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여성들은 차이로 회귀한다. 작가는 이들의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 이 논문은 2019년도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재원으로 GIST 개발과제 학부기본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연구는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광주학연구소 2019년 정기학술대회(‘서발턴, 몸, 그리고 윤리’)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상되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신 선생님들과 유익한 논평을 주신 조형래 선생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속의 죽음정치적 속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강석경 소설은 198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과 연루되나, 반제국주의 담론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로 인한 한계 또한 있으나, 취재에 기반한 소설은 서발턴 여성과 미군이 맺는 관계성이 생명 권력의 자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술계 내 여성의 서발턴니티를 기지촌이라는 서발턴 공간에 중첩시키려는 시도의 양가적 측면을 비롯하여, 소설 속에서 죽거나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 서발턴 여성인물은 독자를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와 마주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서발턴에게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김정자 증언록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 증언록을 통해 생각해 본 서발턴 여성의 말하기는, 사후적인 '되기'의 방식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뚫고 나오는 트라우마의 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작업이라는, 한계와 성취를 동시에 각인시키는 수식어는 비단 문학만의 것이 아니다. 증언과 문학은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조우한다.

주제어: 서발턴, 서발턴니티, 기지(촌) 성매매 여성, 기지촌 여성, '양공주', '위안부', 재현, 증언

1. 뭉 없는 이들의 뭉 : 기지촌 여성과 서발턴 재현

<그는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조국의 자궁에는 미국의 문화 콜라 병이 깊숙이 꽃혔고 조국의 머리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으며 조국의 온 산천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희뿌연 세제가 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유인물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두 번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회영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접어서라도 그 사람의 몸을 가려 주고 싶어서. 맨 앞쪽에 서는 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신과 회영의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범죄는 모국에서! 그러자 누군가 조금 작은 소리로 따라 외쳤다. 강간은 미국에서!)

1) 최은영, 『뭉』, 미메시스, 2018, 39~42면.

동시대 소설가 최은영의 『뭇』은 기지촌 활동가 ‘희영’이 병으로 입증한 이후, 대학 시절 그와 함께했던 ‘당신’(‘해진’)의 회고담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 소설 속의 한 장면은 “미군에게 살해당한 어느 기지촌 여성의 5주기 추모 집회”에서의 정황을 짙막하게 담고 있다. 집회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사건은 “한국의 인권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³⁾이 된 1992년의 ‘윤금이 사건’일 터이다. 이 장면에서 사진의 시신을 가려주고 싶다는 ‘당신’의 반응 앞뒤로는, 그의 죽음을 “조국의 자궁”으로, 또 “우리들의 누이”로 전유하려는 목소리가 배치된다. 기지 성매매 여성이 가시화되는 국면은 ‘민족의 수치’로 경멸당한 몸이, 바로 그 민족이 침탈당한 영토로 환원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⁴⁾ “강간은 미국에서!”라는 진술에 이어 “구호를 중단하세요”라고 호소하는 ‘당신’의 모습에 이르면, 한 장면 속에 여러 시간대가 중첩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분지』로 대표되어온 기지촌 서사에 대한 반세기 이후의 논평으로도,⁵⁾ 촛불 항쟁 등 집회에서의 갈등과 젠더적 개입이라는 현재적 문맥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한국의 지면에 제기된 지 한 세대가 지난 후⁶⁾ 그 담론의 소설적

-
- 2) 『뭇』의 말미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최은영은 이 소설이 2000년대 초 동두천 새우터를 방문한 당시 읽었던 기지촌 여성 운동에 대한 글이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3)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 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집 2호, 2015, 2면.
- 4) 정희진은 “결국 윤금이 투쟁은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기술한다.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86~98』, 한울아카데미, 1999, 339면. 한편 “윤금이 사건에 대한 것보다 양기 반대라는 생소한 구호가 많았다”는, 그 자신 기지촌 성매매여성이자 또한 활동가였던 김연자의 회고에 이어 박정미는 “당시 미군범죄의 근절을 위해 싸운 운동가들은 기지촌 여성을 미군 폭력의 피해자이자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묘사했을 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불의에 대해 싸우는 동료 시민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고 논평한다. 박정미, 『잊혀진 자들의 투쟁 - 한국 성판매여성들의 저항의 역사』, 『역사비평』, 2017, 407~408면.
- 5) 대표적인 비판으로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미국의 군사주의 성노동 · 이주노동』,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 6) 알다시피,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의 첫 판본(1988)은 『하위층이 말할 수 있는가』(『세계사상』 4호, 동문선)라는 제목으로 1998년

재현으로도 읽히는 것이다.

스피박의 문제제기가 그러하듯,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물들이 교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 문제는 다시 토론의 대상이 된다.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아래에서 배태된 문제”이기에 “거대한 구조”를 보아야 한다는 소설 속 다른 인물 ‘정윤’의 말에, 희영은 그것은 “여성 문제”라고 응수하지만 곧바로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온다. “희영이 그렇게 가난해 본 적 있어요? 몸을 팔아야 할 만큼? 대학교육까지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으면서 희영이 같은 여자랍시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48면) 노골적인 폄하와 비난의 어조를 덜고 읽는다면, 대화 전체는 지식인 재현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새삼스러운 감마저 있지만, 제국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에서부터 (1세계) 페미니즘 등까지, 헤게모니적 재현 체제를 통과한 후에 ‘문제’로 남는 것은, 서발턴이 아니라 서발턴이 재현되는 구조와 방식으로서의 담론이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의 은유, 알레고리, 표상으로서 서발턴리티를 전유하지 않고, 또한 지배적 문제들로서의 담론(들)을 경유하(지 않음)면서 서발턴을 재현할 수 있는가? 혹은 반대로, 저 질문 자체가 서발턴의 행위 능력, 말하기/듣기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속적으로 기지촌 여성 문제에 주목해온 이니영은 “한국에서 기지촌 여성에 관해 논한다는 것은 재현의 정치학”이라고 말한다.⁷⁾⁸⁾ 기지촌 여성의

에 대해속에 의해 소개되었다.

- 7) 이하 이 단락의 내용은, 이니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4(3), 2008, 78~79면.
- 8) 기지 성매매 여성의 문제성을 드러낸 신시아 인로, 캐서린 문, 문승숙 등 국외 학자들의 연구들 역시 유익한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 이를 국제 정치학의 견지에서 포착한 신시아 인로의 연구에 이어, 캐서린 문은 한미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탐사하고, 문승숙은 한미 양국이 통제해온 성매매의 역사를 ‘군사화된 남성성(근대성)’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조망한다. 차레로, 신시아 인로,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권인숙 옮김, 청년사, 2011;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문승숙·마리아 혼 엮음, 『오버 테어 -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정체성과 경험은, 제국, 민족, 성별 등 주체/시각의 경합에 의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그 재현은 “그동안 비가시적 존재였던 여성 주체를 역사의 의식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자 정당한 존재성을 부여하는 일”이지만, 연구자 자신을 포함하여 재현의 주체는 “기표들 속에 숨겨진 특정한 기의를 과장하고 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재현의 윤리는 따라서, 재현의 불안정성(틈새와 균열)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를 열어두게 된다.

문학 연구에서도 이른바 ‘기지춘 소설’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짧지 않다.⁹⁾ 기지(춘) 성매매 여성에 주목한 주제론 중에서, 여성 소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논의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⁰⁾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안은, 앞에서 거론했듯이 소설의 재현에 민족, 국가, 계급, 성 등의 함수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 문제들들은 평가의 기준으로도 작동하거나, 특히 재현 주체의 젠더의식은 유의미한 참조점이며, 대체로 민족/국가라는 기표와 연동되어 나타난다. “희생자, 피억압자, 피착취자라는 공적 재현 속에서만, 또 식민화된 국가와 민족의 은유로서만 존재”했던 저간의 사정이 역사적 배경으로 지적되

삶,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이하 참조가 필요한 경우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9) 논의 초기에는 주로 오상원, 하근찬, 오영수, 남정현, 조정래, 황석영, 조해일, 문순태 등 남성 소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대한 기지춘 소설을 망라하고 그 계보를 제시한 손윤권의 학위논문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소설들은 모두 100여 편에 이른다. 손윤권, 「기지춘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0)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일레인 H.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삼인, 2001;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1950-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3, 2003;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여성문학학회, 2003; 박선애, 「기지춘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춘 성매매 여성과 아메라시아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서론 및 본문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론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개별 작가론과 작품론에서 주목된 경우도 이어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며,¹¹⁾ “남성서술자는 이들을 피해자와 수동적 여성의 이미지로 획일화” 시키고, “산업화와 근대화로 야기된 서구주의적 폐해를 매춘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냈다”고 분석되거나,¹²⁾ “대부분의 중산층 남성작가들의 작품”은 민족주의 시각을 경유하여 “한국 민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적 폭력”을 은폐한다고 지적된다.¹³⁾

이와는 달리 여성 소설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의가 가늠되는 소설의 경우 여성 인물의 경험과 심리를 포착하려 했다는 사실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을 전복하거나, 재현의 전형성을 탈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비판적으로 읽히는 사례들에서는 대개의 경우, 작가의 계급이 문제적으로 환기된다. 예컨대, “중산층 작가라는 계급적 한계”로 “내면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¹⁴⁾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의도적인 계몽성과 다른 계급에 대한 관조적 이해” 등으로 인해 비판된다.¹⁵⁾ 그리고 위와 같은 긍부정의 시각은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서도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선행 연구의 맥락과 구도를 참조하면서, 이 글의 대상 텍스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연구 경향을 재고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시기에 발표된 텍스트들은 대개 특정 시기에만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거나, 아니면 시기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평면 위에서 해석,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러나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11) 김연숙, 앞의 글, 124면

12) 박선애, 앞의 글, 276면.

13) 김미덕, 앞의 글, 7면.

14) 박선애, 앞의 글, 같은 면.

15) 김미덕, 앞의 글, 같은 면.

16) 예외적인 논의로 손윤권의 박사논문을 들 수 있다. 손윤권은 ‘기지촌 소설’ 전체를 미군정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미군철수, 반미주의와 탈식민이데올로기 등을 중심으로 1~3기로 분류하고 있다(손윤권, 앞의 글). 1950~80년대 여성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소략하게

정책은 몇 단계로 변화해 왔으며, 그 정책적 방향은 기지(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⁷⁾ 가령, 이나영은 전쟁 직후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미군의 주둔과 맞물림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미군 상대 성매매에 나섰고, 사실상 그 범주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고 파악한다.¹⁸⁾ 하지만 이후 “외국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 여성(숙칭 위안부)”을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는 방안에 관련 부서 장관들이 합의한 시기는 1957년이며, 같은 해에 ‘위안부’의 성병검진 주기를 명기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 시행된다.¹⁹⁾ 특히 1965년부터는 기지(춘)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 뿐 아니라 치료까지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는데, 박정미는 이를 기지(춘) 성매매 정책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읽는다.

다음으로,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지식인) 작가와 (서발턴) 재현 대상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문학은 현실이 말하지 못한 현실을 포착하고 창안하여, 그 현실의 지평과 반경을 넓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서발턴 재현에 있어서, 인물의 새로움을 평가하는 데에는 작가와 재현 대상 사이의 거리 또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텍스트의 한계를 곧 작가의 주체 위치(가령, 계급)로 환원하는 결정론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생산적으로 고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사적 성취와 한계를 작가의 몫으

살피는 이 글은, 일단 그 분기점들 중 하나로 「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주목한다.

17) 이 변화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연구들로는,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2004; 김기욱,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 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 연구』 2(1), 2011; 이나영, 『기지(춘)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박정미, 앞의 글.

18) 이나영, 위의 글, 33~34면. 이 논문은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의 범주가 국가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위안부’와 ‘미군 동거녀’로 분류되어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 구분되어 통제되기 시작한 시점을 1958년(보건사회부)으로 보고 있다.

19) 이후 박정희 정권은 성매매 금지정책인 「윤락방지법」(1961)을 시행했음에도, 다음해에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하는 특정지역 104개소(경기도의 기지(춘)를 설정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에서 박정미는 “기지(춘) 여성에게 행사된 독특한 법적 통제의 양식”을 푸코와 아감벤을 경유하여 ‘예외상태’라는 관점 아래 구명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상의 사실은 박정미, 앞의 글 참조.

로 돌리는 일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서발턴 재현이 연구자가 견지한 하나의 상으로 수렴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작가의 시각과 서발터니티가 어떻게 절합하는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기지(춘) 여성의 자기-재현의 한 사례를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간단히 짚어 보려 한다. 서발턴 재현의 문맥에서 보면 문학은 늘 불충분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 한계가 거론되면서도, 서발턴 자신의 재현(말하기)이 함께 검토된 경우는 드물다.²⁰⁾ 물론 이러한 사정은 기지(춘)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의 역사를 재현한 자료가 희소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²¹⁾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희소한 만큼 그것이 모든 재현을 대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발턴의 재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생각할 지점들 중 하나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에서는 기지(춘) 성매매 여성의 재현에 주목하여, 관련 여성 서사를 시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모든 작품을 검토하는 것은 이 지면의 너비와 역량을 초과하는 일이므로, 대상 작품의 선정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여성이 쓰고/말하고 여성 인물이 주도하는 서사일 것. 다음으로, 기지(춘) 여성과 연관된 작품을 두 편 이상 발표함으로써 그 문제의식을 이어나간 작가일 것. 마지막으로 작품들이 묶인 장(章)별로 시기적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박완서와 강신재, 그리고 강석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기지(춘) 성매매 여성이 어떠한 재현의 코드에 의해 혹은, 반해 재현되었는지를 검토하

20) 예외적인 사례로 김현숙(앞의 글)과 김미덕(앞의 글)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21) 삼인에서 펴낸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자서전); 여지연, 『기지춘의 그늘을 넘어-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 아내들 이야기』, 임옥희 옮김, 삼인, 2007(인터뷰에 기반한 연구); 문동환, 『두레방 여인들-기지춘 여인들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두레방 신학 30년』, 삼인, 2017(경험담 재구성). 이들 중, 기지춘 여성에서 활동가로 변모한 김연자의 자서전은 서발턴 여성이 활동가로 발전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서전이 폐쇄적이진, 김연자 활동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정희진 김현숙 등이 자세하게 상론한 바 있다. 정희진, 앞의 글 및 김현숙, 앞의 글 참조.

고, 이어서 작가와 재현 대상 사이의 간격을 통해 서발턴의 재현(불)가능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나갈 것이다.

2. 재현의 탈코드화와 친밀성 거래의 이면 : 강신재·박완서 소설의 경우

미군 부대와 연루된 한국인의 삶에 대한 작가 박완서의 문제의식은 197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완서의 데뷔작인 『나목』(1970)의 첫 장면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판매하려 하는 PX걸 ‘이경’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나목』은 미 8군의 한국물산 매장을 배경으로, 미군들과 더불어 이경과 같은 매장 판매원, 초상화가, 청소부 등 PX에 소속된 사람들의 세계가 펼쳐진다.²²⁾ 그런데 1970년대의 박완서는 미군 부대(서울 명동)가 PX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의 『나목』과는 달리, 부대가 없었던 마을에 미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을 담은 소설들 역시 썼다. 평범한 농촌으로 짐작되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의정부, 평택, 동두천, 파주 등 기지촌의 시작점에 견줄 만한 삽화를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와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은 담고 있다.²³⁾ 예컨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피난민과 원주민이 3대 1쯤”인 마을의 산 너머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자 ‘나’는 마을이

22)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미군 PX의 공간성을 젠더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선구적인 논의로는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한국 여성 작가 중에서 기지 성매매 여성에 주목한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긴 작가는 박완서이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은 기지 성매매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기지의 형성과 결부된 한국 근대성의 구조적 맥락을 탐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논의가 필요한바, 이 글에서는 기지촌의 시작점에서 성(매매, 폭력)의 문제가 가시화된 장면을 담고 있는 두 편의 소설에 집중하기로 한다.

23) 필자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을 각기 다른 테마로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장면들이 기지촌의 시작점을 짚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였다. 이 절의 논지는 앞선 논의의 보완으로 읽히기를 바란다.

“이상한 활기”에 빠졌다고 서술한다. 서술자의 전언에 따르면 “먼저 피친 것은 욕기나 기름기가 아니라 느글느글한 화냥기였다.”²⁴⁾

가난과 굶주림으로 가뜩이나 새카맣게 말라비틀어진 얼굴에 고실고실 들고 일어나 새등우리처럼 된 머리가 덮치지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넉넉히 비참의 극인데, 어머니는 게다가 화장까지 시작했다. 어디서 분가루랑 입술연지 토막을 얻어다가 깨진 거울 앞에서 치덕거렸다. 그러곤 낫도깨비처럼 길가를 오라가라했다. 나는 부끄러워할 수조차 없었다. 불쌍한 어머니,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던 말인가.²⁵⁾

드디어 화장은 완성됐다. 거울을 본 노파가 만족한 듯 웃었다. 그저 웃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쥐어뜯 것처럼 처참한 교태가 섞인 웃음이어서 보고 있던 여자들은 다 같이 섬뜩했다.

색시 해브 예스? 소리가 마침내 여자들이 모여 있는 큰 집 대문에 와서 멎었다. 양코베기들도 안에서 나는 인기척을 감지했는지 미친 듯이 대문을 흔들어들었다.²⁶⁾

두 인용문은 모두 화장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장면화하되, 그 장면은 이를 목도하는 젊은 여성(들)의 시각을 경유하여 제시된다. 화장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작가가 두 장면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은 ‘성매매에 처해지는’ 상황이다. 화장을 하는 여성의 얼굴은 남성적 응시의 대상이 아니며, 장면을 구성하는 진술들은 이 모습이 “비참”이자 “처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일견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작가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음을 장면 전후로 다시 한 번 설득한

24)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완서 단편집집 1, 문학동네, 1999, 314면.

25) 위의 글, 316면.

26) 박완서,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집집 2, 문학동네, 1999, 288면.

다. 어머니는 피난지의 “아귀다툼” 속에서 “주린 짐승”들일 수밖에 없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마을 대모인 노파는 미군 병사들이 “섹시 해브 에스?”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들 중 누군가가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화장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선다.

두 장면에서 화장은 유혹(자)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입게 되는 생존(자)의 가면과 같이 그려진다. 그 결과로써 인물의 모습은 매혹적인 미감으로 채색되지 않고 기괴하고 섬뜩한 공포를 낳는다. ‘어머니’와 ‘노파’가 장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역시 곱씹게 되는 대목 중 하나다. 특정 연령대 여성의 성적 방종이라는 관념에 맞서, 소설은 그것이 벌거벗은 생명의 공포와 맞대면해야 할 사람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문맥을 구성한다. 두 소설이 공유하는 또다른 정황은 사실상 성매매/폭력 없이 소설의 서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에서 미군은 노파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린 후 마을의 여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전달하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어머니의 모습에 좌절한 ‘나’는 성매매에 처해지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목숨을 걸고 맞닥뜨린 공포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시혜의 웃음으로 마무리되거나, 협상의 결과로서 가부장제로의 편입으로 일단락되는 것이다.

전쟁 중에 발표된 강신재의 「관용」에서도 소설의 배경인 “거재리 미군부대” 인근의 한편에는 “논바다에 이리저리 포개어 놓인 벼단들”이 쌓여있고, 다른 한편에는 미군들의 “짚차”가 오고 간다. 전쟁기와 그 직후를 배경으로 미군 대상 성매매를 예각화한 또다른 작가인 강신재는, 「관용」(1951), 「해결책」(1956), 「해방촌 가는 길」(1957)을 차례로 발표한다. 미군 부대가 들어온 직후 여성의 삶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소설들과 흡사한 설정이지만, 강신재 소설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 인물로 하여금 전근대적 구습에 대한 응전이라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이 도전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연구에서 유사하게 포착

하고 있다. 심진경은 강신재 소설에서 “양공주라는 기호는 단지 성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발견과 자기 정체성 확인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²⁷⁾ 김은하는 이들의 ‘양장’에 주목하여 “전통과 서구 혹은 제국과 식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중적 억압을 야유하고 도발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소도구에 가깝다”²⁸⁾고 논의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나보령이 평가하듯이 “당대 남성 작가들의 소설 및 사회 담론에서 이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전도”²⁹⁾하는 측면에서 그 시대적 의미를 확보한다.

그런데, ‘표상’, ‘기호’, ‘퍼포먼스’ 등의 해석들은 따지고 보면, 작가가 “양공주”의 서발터니티를 전유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진술들이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용이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인물들의 배치(위치성과 관계성)다. 「관용」과 「해결책」의 서사는 공통적으로, 두 여성인물의 위치성과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팻지이’와 ‘뉴스타-티드’(「관용」), ‘덕순’과 ‘김미라’(「해결책」)가 그들로, 이야기는 이 두 인물이 서로를 관찰하고 탐색하는 시선의 교차 속에서 전개된다. 예컨대, 정연희의 「천팔라 이야기」(1960)에서 두 여성의 차이(관계)가 남성 서술자의 시선에 의해 매개되는 것과 비교하면,³⁰⁾ 「관용」과 「해결책」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여성인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며, 평가가 역전되는 국면은 두 소설 모두에서 결정적인 대목이다.

덕순이는 이마를 내려뜨리면서

“저어 이 애를 낳기까지 하여간 기둘러 봐야겠어. 만약 사내애 것 같으면—
우리 그인 사내애가 없어서 한이었으니까 혹 맘을 돌릴지두 알 수 없구……어쩔

27) 심진경,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72면.

28)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 여성문학학회, 2010, 202~203면.

29) 나보령, 「강신재 문학 연구 - 여성과 전쟁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3, 79면.

30) 정연희, 「천팔라 이야기」, 『새벽』 30, 1960. 2.

든 낱아 보아야겠어.”

어려운듯이 그러나 확고하게 하는 말이었다.

김미라는 잠자코 서 있었다.

이상한 해결책도 다 있다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미라의 이해밖의 일이었다.³¹⁾

『해결책』은 남편인 사장 ‘관모’에게 학대당하는 만삭의 임신부 덕순이, “첫 눈에 벌써 양공주나 그런 종류의 여자가 틀림없다고 짐작”(288면)한 김미라에게 십오만환에 방을 세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말 직전까지 서사의 대부분은 덕순에게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 전체는 덕순이 김미라를 편견과는 달리 새롭게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멋쟁이 색시” 김미라라는 존재로 인해 덕순이는 비로소 ‘구식여자’로 위치되거나, 강신재 소설의 주도적 여성 캐릭터에 더 가까운 인물은 김미라이다. 가부장적 무시와 폭력, 전근대적 착취를 배경으로, 덕순과 김미라의 차이는 연대감 속에 좁혀지고, 작가는 여성이 겪는 고통과 분노를 서발된 여성 캐릭터에 의지해 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가령, 첩을 둔 관모에 대항하여 덕순에게 김미라가 내어놓는 두 번째 해결책은, 덕순으로서는 뜻밖에도 “염산(鹽酸)을 쓰는 것이 제일”(306면)이라는 답이다. 그리고 그 답은 “자기의 동무가 그렇게 하여서 잠시 감옥사리를 하고 나왔다”는 그때껏 드러나지 않았던 김미라의 다른 관계성을 경유하여 발화된다.

그러나 김미라의 해결책들이 제시된 장면에서부터, 김미라의 위치는 덕순에 의해 다시 재조정된다. 덕순은 김미라의 첫 번째 답인 “생활비나 듬뿍 내도록 법적 수단을 쓰는 것”까지는 마치 크게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두 번째 답에 대해서는 “질려서 놀란 듯”하다가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김미라에게 되묻는다. 호응하는 말과는 달리 이미 첫번째 해결책에서부터 덕순은 망설이기 시작한다. 김미라가 말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은 결혼

31) 강신재, 『해결책』(『여성계』, 1956. 8.), 『회화』, 계몽사, 1958, 308면.

관계가 경제적 조건에 의한 거래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를 경제적 거래로 다시 쓰는 그의 시각을 덕순은 수리하지 못한다. 전쟁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약혼자와는 이후 “동무”가 되고,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이 ‘싫기’ 때문에 “미국 병정”(들)과 산다는 김미라의 사연은 덕순에게는 “이해 밖의 일”이다. “사내애”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덕순의 최종 결론은, 부계 중심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관모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리고 이 결론은 물론 김미라에게는 “이해 밖의 일”이다. 소설은 두 인물의 편에서 각각 발화되는 이 반복적 진술과 함께, 실상 어느 쪽의 해결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아이러니 속에서 끝난다.

기애의 이야기는 정말이었다.

그러나 정말이 아니라도 무방하였다. 육이가 똑바로 자라나 줄것 만이 여기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똑 바로 자라나다오. 그것은 누나처럼, 근수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되지 않는 일이다. 다른 무슨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너는 그것을 해낼 소질이 있을 듯해 보인다.

보아와 잠깐 장난을 치다가 돌아가는 육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애는 이번에는 또 똥딴지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하리이>가 지금 당장 어디루 가버린댜자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걸. 백번 팽개쳐 진댜자 꿈쩍도 하지 않을걸…….)³²⁾

“만삭에 가까운 배를 안고” 등장한 덕순이 출산을 결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해결책』과 나란히 보면, 『해방촌 가는 길』은 ‘기애’의 낙태로 시작하여, 그가 동생 ‘육’의 양육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해결책』에 이어 1년을 시차로 강신재가 발표한 『해방촌 가는 길』은, 제목에서 이미 짐작되듯이 앞선 소설들보다 한결 더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³³⁾ 『해방촌 가는 길』은 오롯이

32) 강신재, 『해방촌 가는 길』(『문학예술』, 1957.8.), 『여정』, 중앙문화사, 1959, 338면.

33)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에 주목한 작가의 세 작품 중에서, 1974년 삼익출판사에서 발간

기애가 이끌어 가는 서사다. 전후 여성들 간의 차이와 갈등은 그와 어머니 ‘장씨’ 사이에서 세대적으로 구성되고, 기애를 둘러싼 남성인물들은 모두 군인(미군 ‘조오’, 상이군인 ‘근수’, 미군 ‘하리이’)으로 배치된다. 군인이 된 약혼자가 죽었다고 오해한 후 미군 성매매로 접어든 ‘해결책’의 김미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남성-군인과의 제도적 결합은 죽음의 기호와 함께 와해되고, 미군과의 탈규범적 관계를 선택하는 여성 인물의 “투지”는 부각된다.³⁴⁾

이 지점에서 앞에서 다룬 박완서의 소설을 다시 상기해 보자.³⁵⁾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와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장면들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소설들이 소위 ‘성녀(어머니)와 창녀의 이분법’이 균열하는 지점을 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다이아나’, 『그 남자네 집』의 ‘춘희’ 등 박완서 소설에서 기지(춘)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 ‘내적’ 존재로 포착된다.³⁶⁾ 『해방촌 가는 길』의 기애 역시 예외라

된 강신재 대표작 전집(1권, 『단편선집』)에 수록된 소설은 『해방촌 가는 길』 한 편이다. 김미현은 『해방촌 가는 길』을 “강신재 소설에 사회성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대표적인 소설”로 꼽으며, “전쟁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처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김미현, 『비누 냄새와 점액질 사이의 거리』,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425~426면.

34) 신문기사를 통해 그에게 구애하던 근수가 자살했다고 확신한 직후, 기애는 “이만 오천환”의 무역회사 일자리를 그만두고 용산의 미군 장교 구락부를 찾아간다.

35) 특히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은 현재에도 논의가 빈발한 문제작이다. 대표적으로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술의 양상과 변화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158~160면; 한경희,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 -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무』(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468~469면.

36) 김주희는 “성판매 여성들의 존재는 흔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여자라고 상상”되지만, “실제 성매매 공간에서 많은 여성은 가족들 때문에 노동하고,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동하며, 가족과 함께 노동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를 ‘어머니와 창녀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희,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참조.

고 할 수 없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기애는 동생 옥이에게 다른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 내 미래세대인 옥이를 부양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대칭적인 맥락에서, 당시 한국으로 파견되는 미군들이 영국, 독일 등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아내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해보자.³⁷⁾ 환언하면, 미군과 한국 성매매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닫힌 공간의 성적 교섭에 국한되지 않는 친밀성의 요구(애인, 동거인, 부부)를 암묵적으로 내장하고 있었다.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조건에 의한 ‘노동’이지만, 그것의 노동으로서의 성격이 비가시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강신재 소설의 기애‘들’은 오은엽의 지적대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라도 나름대로 일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³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부양하는 가족(옥이)에게 여성(기애)의 수입은 노동이 아닌 “색다른 생활을 하는 누나가 주는 돈”(『해방촌 가는 길』)으로 표현된다.

성적 관계를 포함하여 친밀성을 대리하는 노동이라는 사실은, 그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들,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관계(존재)가 대리 가능한 관계(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이 질문이, 강신재가 도전적으로 전유했으되, 간과하기 어려웠던 서발터니티의 중핵이라고 판단된다. 『관용』에서 미군 부대 인근 성매매 여성인 두 인물이 서로를 쉽게 관용하게 할 수 있는 원초적인 조건 중 하나는, 그 거래(관계)가 한시적이라는 사실이다. 『해결책』에서 그 사실은 “그 먼저 앤 좀더 어렸어요”라는 김미라의 진술 속에 환기된다. 그리고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을 주인공로 삼은 마지막 소설인 『해방촌 가는 길』에서 그 관계성은 “백번 팽개쳐” 지는 것의 예감으로 확장된다.³⁹⁾ 에필로그와 같이 덧붙여진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의

37) 신시아 인로, 앞의 책 4장 참조.

38) 오은엽, 『강신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양공주’의 형상화 연구 - 『관용』, 『해결책』, 『해방촌 가는 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91면.

지와 무관하게 개입하여, 그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환원된 기애의 “똥판 지같은 생각”은, 이후 기지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똥판지같은’ 것이 아니다. 『해방촌 가는 길』이 발표되던 바로 그 해에 ‘전염병 예방법’이 발표되기도 했던바, 실상 이 “은밀성의 노동”에는 “죽음정치적 속성”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⁴⁰⁾

전쟁 중과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한 박완서의 강신재의 소설들에는 ‘마담’, ‘마마상’ 등으로 표상되는 중개·알선업자, 이른바 포주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을 매개로 발생하는 채무도 없으며,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강압적으로 복용되었던 약물도 없다. 미군의 폭력도 소위 ‘기동서방’의 착취도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성매매 여성들을 독려하는 관의 명령도, 관리 감독하는 경찰과 보건소도 없다. 결정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로 게토화된 기지춘이 없다. 미군과의 연애 및 동거와 성매매의 경계는 흐려져 있으며, 작가들은 성노예화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처해지는 조건이나 구속에 대한 도전에 보다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지춘이 완성된 다음 세대의 소설들에서는 이 모든 사안들이 피할 수 없는 배경이 된다.

3. 교차하는 서발터니티와 ‘안 들리는 것을 말하기’: 강석경 소설

사회사 연구의 자료로 제시되는 등,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을 흔히 수

39) 『해방촌 가는 길』에서 대구의 부대에서 만나 동거한 군인 조오와, 결말부의 서울의 “똥똥보 하리이”는 기애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이후의 관계는 “언제든지 명령이 내리면 본국으로 휘짝 날아가버릴” 미군들에게 “백번 팽겨쳐” 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0) ‘군사노동’, ‘성노동’, ‘군대 성노동’, ‘이주노동’ 등 “대체하는 노동”이 “역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관계의 존재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이진경의 통찰은 이 국면에서 유효하다. 그에 의하면, 신체와 생명을 상품화하는 대리노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정치적 노동이며 그 속성을 감추기 위해 ‘은밀성의 노동’이 된다. 이진경, 앞의 책 참조.

식하는 말들 중 하나는 ‘증언’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강석경은 그의 소설들이 ‘취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낮과 꿈』과 『밤과 요람』(『서울신문』 연재 당시 제목은 『세인트 씨니』)이 발표된 1983년의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어떤 작품도 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의식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번 작품은 기지촌에 잠입하여 취재한 결과 나온 것”이라 말하고,⁴¹⁾ 그로부터 19년 후에도 “기지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 “취재”했으며 “그들의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장감이 살아 있다는 자부는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⁴²⁾

작가의 진술에서 ‘연대’, ‘사회적식’, ‘잠입’, ‘접근’, ‘현장감’ 등의 어휘들은, 왜 그가 기지촌으로 가서, 다른 누구도 아닌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취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인도한다. 이 질문은 198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 가령, 이혜령은 “1980년대 한국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사의 유력한 주인공을 탄생”시키는데 “변혁운동에 헌신하고자 증산층 가정을 뛰쳐나온 여대생이 그 주인공이었다.”⁴³⁾고 진단하며, 강석경의 『숲속의 방』을 그 인물형의 한 사례로 든다. 그런데 그 기지의 장소가 공장이 아니라 기지촌이라면 어떠한가. 공장이 아닌, 성매매 집결지에서도 함께 노동하고 생활하는 지식인 캐릭터가 서사적으로 가능한 형상이었을까. 강석경의 『낮과 꿈』, 『밤과 요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판과 옹호의 입장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그 입장차는 결국 지식인으로서의 작가와 기지 성매매 여성이라는 재현 대상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사고하느냐

41) 『강석경의 『낮과 꿈』』, 중앙일보, 1983. 6. 23.

42) 강석경,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29) - 소설가 강석경』, 신문, 2002. 10. 3.

43)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16면. 이혜령은 1980년대 주체성의 한 형상으로 ‘학출 여성 노동자’를 호명하며, 그 형상이 “민중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같은 글은 “1980년대 ‘좌파 민족주의 문학’의 전형이 남성 노동자 계급이라면, 그 만큼의 전형성을 부여받은 여성 인물은 여성노동자라기보다 식민지적/신식민지적인 지배를 받은 한국의 모순을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기지촌 여성이었다”고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

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소설을 비전형적인 서사로 읽는 글들은 소설 속 여성인물들, 특히 주인공 여성 캐릭터에 주목한다. 『낮과 꿈』의 ‘나’(‘배기’)는 “희생자나 타락 자라는 ‘양공주’ 형상화의 도식을 벗어난다”고 분석되며,⁴⁴⁾ 『밤과 요람』의 ‘선희’(‘씨니’) 또한 “양공주답지 않은 양공주”로 기지 성매매 여성의 전형성을 벗어나 있다고 파악된다.⁴⁵⁾ 두 글에서는 모두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을 재현하는 “순정과 위약”(전자)이나, “이십 대 처녀의 반항심과 센티멘털리즘, 자발적 고립”등의 “정서적 요소”(후자)가 주목되는데, 그 핵심은 기지춘 성매매 여성의 전형적 도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론에서 살핀 것처럼, 두 소설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들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중산층-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시작된다. 『밤과 요람』은 ‘선희’가 “정신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자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지춘의 매춘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현실적 모습은 은폐되고 지적인 자아의 갈등과 혼란상만이 보일 뿐”으로,⁴⁶⁾ 『낮과 꿈』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중산층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성매매 여성을 매도하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말살시켰다”고 비판된다.⁴⁷⁾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보려 한다. 먼저, 전형성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는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기지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낮과 밤』에서 인물이 보여주는 “순정과 위약”은, 비판에서 강조된바 기지춘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즉, 소설에 나타난 관계의 특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낮과 꿈』의 도입부와 결말부의 두 문장은 기지춘 여성(‘나’)과 동거중인

44)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여성문학학회, 2003, 170면.

45) 심진경, 『질문하기 그리고 소설 쓰기』, 『밤과 요람』 해설, 책세상, 2008, 378~379면.

46) 박선애, 앞의 글, 285면.

47)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일레인 H.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삼인, 2001.

미군(‘오버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낮과 꿈」은 “일주일 만에 나는 검진에 걸렸다”(7면)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오버튼이 지불한 비용으로) “마미상 빛은 벌써 갚았지만 돈을 쓸 곳은 지천에 깔려 있었다”(29면)로 끝난다. “신랑 덕분에 호강은 못할망정 병을 앓아 몽키하우스로 가야 하다니”(7면)라는 서술처럼, 동거중인 그들을 ‘신랑’과 ‘신부’로서의 묶어주는 것은 ‘앓은 병’이다. 그리고 좀더 뒤에 그들의 관계를 집약하는 내용이 더 추가된다. 균은 두 사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을 앓긴 여자를 컨택하겠다고 시무룩한 어조로 말했다.”(같은 면) 소설 속 ‘나’와 오버튼의 관계는 인간의 감정과 행위뿐만 아니라, 비인간행위자인 ‘균’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낮과 꿈」의 행위자성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생명 권력의 양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낮과 꿈」과 「밤과 요람」에는 그 공간적 배경이 기지촌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드러내는 기호들이 있다. 이미 간단히 환기했던 것처럼, 앞 장에서 다른 소설들에서 출몰하지 않던 그 기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검진’, ‘몽키하우스’(낙감자 수용소), ‘보건소’, ‘항생제’, ‘폐니실린 주사’, 그리고 ‘오탁리돈’(옥타리돈, 항정신성 약물). 소설 속에 드러난바, 한미 양국의 생명 권력은 기지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자율적인 몸이 아니라, 전염균의 숙주로 환원하여 강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⁴⁸⁾ 성매매 업주들은 그들의 신체와 정신을 약물과 부채로 구속하여 노예화한다.⁴⁹⁾ 작가 강석경은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소설적 공간을 구축하고, 먼저 그러한 공간 속에 놓인다는 것의 의미를 서사적 전개를 통해 탐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소설에서는 기지촌에 대한 관념적인 논평이 전개되는 국면이 있는데

48) 박정미, 앞의 글 참조. 아울러 강석경 소설은 양 국가의 생명 권력이 미군에게 작동하는 양상도 부분적으로 포착한다. 앞에서 거론한 ‘나’와 동거하는 오버튼(「낮과 꿈」)뿐 아니라 선희와 동거하는 데이브(「밤과 낮」) 역시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 소설 속 인물들은 많은 경우 미군과 동거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밤과 낮」에서는 거의 미군이 기지촌 여성에게 기식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49) 캐서린 문이 지목하는 기지촌 여성 착취의 가장 두드러진 방식은 ‘채무 속박 체계’이다. 캐서린 문, 앞의 책, 45면.

그 서술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낮과 밤」의 ‘나’와 「밤과 요람」의 선희 등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소설 내적 위치는 ‘지식인 주인공’의 그것에 비견되고,⁵⁰⁾ 이들의 진술은 곧 당시 지배적 담론(민족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작가의 그것이라 짐작된다.⁵¹⁾ 언급했다시피, 「낮과 밤」의 ‘나’와 「밤과 요람」의 선희는 다른 여성들과는 차별화된 캐릭터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마치 ‘학출 노동자’의 서사처럼 ‘출분’의 시점이 기록된다. 「낮과 꿈」의 ‘나’(배기)가 “집을 나온 것은 미군부대에 취직했다는 중학 동창을 우연히” 만난 “여고 2년 때”(22면)이며, 「밤과 요람」에서 기지춘에 온지 “이제 네 달”인 선희는 GI와 결혼 이민을 앞둔 친구와 만난 후 그의 ‘방’을 이어받아 기지춘 생활을 시작한다.

일단 작가는 취재를 바탕으로 기지춘 여성의 생활사를 시도한 것으로 읽힌다. 예컨대, 「낮과 밤」의 도입부는 ‘몽키하우스’에 구속되어 있는 ‘영자’, ‘토마’, ‘티나’, ‘추자’, ‘씨니’, ‘순자언니’를 포착한다. 이들의 사연과 습관, 감정들은 연대감 속에 그려지는데, 이후 「낮과 꿈」의 서사가 두 기지춘 여성의 사망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인 “기동서방”에 의해 ‘미라’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과 여성 군인 ‘바바라’와 결혼 이민을 계획하던 순자언니가 돌연히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다. 기지춘 내 한국 남성의 폭력을 가시화하는 미라 살해 사건 뿐 아니라, 이성에 바깥의 영역을 탐사하는 순자언니의 바바라의 존재 또한 주목을 요한다. 순자언니가 기지춘으로 유입

50) 「낮과 꿈」의 ‘나’(배기)가 여학교 때부터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밤과 요람」의 ‘선희’(씨니)가 독서와 음악을 향유한다는 사실은 이 위치에 부수적인 설정이기도 하다.

51) 예컨대, 작가는 「밤의 요람」 등에서도 흑인 노예제를 예로 들어 식민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술한다. 특히 「낮과 밤」에서 “나는 레즈비언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자연의 법칙대로 남자를 사랑하고 원하는 여자일 뿐이다”라거나, 기지춘 여성을 살해한 한국 남성에게 대해 “죄는 밋지만 자존심은 있네”라는 등의 ‘나’의 진술들은 각각 이성애중심주의와,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비판되었다.(자세한 내용은 김현숙, 박선에 앞의 글) 이 한계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러한 진술들이 서사 속 다른 인물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짚어두려 한다.

된 배경은 하위 계급 여성의 노동이 강간 등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며,⁵²⁾ 두 인물의 관계는 “군대는 이성애자인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다는 가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욕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⁵³⁾을 해체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을 위해 “뒤늦게 이 바닥에 들어” 왔다는 순자언니의 고통을 서술자 ‘나’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가 연민에도 불구하고 순자언니의 ‘꿈’을 “무지스러운 삶”의 “맹목”이라 일컬을 때, ‘나’가 가진 ‘지(知)/알’의 존재와 그 성격이 드러난다. 순자언니 뿐 아니라 결혼 이민은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공유하는 꿈이지만, 서술자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삶의 형편보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에 더 주목한다.

“뜨개질이 좋아서 하는 건 아냐. 그저 숙제하듯이 해.”

“누구한테 부탁받았수?”

“그런 건 아냐. 염주알 세는 기분으로 한달까.”

내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자 순자 언니가 불쑥 물었다.

“나이가 몇이야?”

“스물여섯.”

“좋은 나이네. 난 그때 둘째 아이를 낳았어. 무얼 조금만 알아서도 애를 낳지 않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여자의 손이 주춤하더니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나는 레이스를 어디다 쓸 것인지 물을었다. 레이스를 짜는 모습이 마치 쇠꼬챙이로 땅을 파는 것처럼 답

52) 죽고 나서야 밝혀지는 순자언니의 과거는, 기지가 생기기 이전의 평화로운 농촌 공동체가 신식민 세력인 미군의 등장과 함께 파괴되었다는 관념을 상대화한다. 캐서린 문은 “기지촌 매대촌에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미 심각한 박탈과 확대-빈곤, 강간, 연인이나 남편에 의한 반복적인 구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분석한다. (캐서린 문, 앞의 책, 46면.) 이나영 또한 “해방문학이나 기지촌 문학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은 군사주의, 미제국주의의 절대적 희생양으로 등장”하지만 “기지촌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들은 예외없이 한국 가부장의 무능력 및 무책임성, 폭력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나영, 앞의 글, 33~34면.)

53) 문승숙, 앞의 책, 128면.

답해 보였던 것이다.⁵⁴⁾

‘나가 그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순자언니가 뜨개질하는 행위를 진술하는 국면에서 두드러진다. 다른 기지춘 여성들과 그를 구별짓는 행위는 뜨개질이다. 그는 몽키하우스에서 “레이스를 짜는 모습”으로 ‘나’의 호기심을 자아냈지만, 기지춘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는 섬”(25면)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뜨개질은 의미 없는 뿌리내리기의 시도이다. ‘나’는 그 모습이 “마치 쇠괴챙이로 땅을 파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몽키하우스라는 서발턴 공간에서 행해지는 순자언니의 ‘뜨개질’과 그에 대한 나의 ‘읽기’는, 서발턴 여성의 재현 (불)가능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만든다.⁵⁵⁾

순자언니는 자신을 뜨개질로 재현(대표)하고자 하지만, ‘나’는 그 행위를 (“염주알을 세는 기분”이라는 순자언니의 은유가 아닌) 자신의 은유 안에 배치하여 무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미 ‘나’의 해석이 얼마간 그러하거니와, 순자언니의 행위를 결혼이민에 대한 열망과 연동하여 기지춘에서 박탈된 이른바 ‘전통적 여성성’에의 꿈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다. 그가 죽은 후에야 밝혀지는 과거처럼, “가만 보면” 술에 취한 순자언니가 “미군들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내쫓”(26면)았다는 모순적인 사실도 죽음 이후

54) 강석경, 『낮과 꿈』, 『밤과 요람』, 민음사, 1983, 11면.

55)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의 논의는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의 말미에서 논의한 ‘부바네스와리 바두리의 사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사례의 문제성을 이유혁의 논문(『스피박 다시 읽기-서발턴 논의의 재고와 이론적 적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광주학연구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9.6.)으로부터 상기할 수 있었다. 스피박의 논의 속에서 바두리는 “자신의 죽음이 불법적인 정열의 결과로 오인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려” 죽음을 선택했다. 그의 ‘말하기 시도가 “여성 자살에 인가된 동기를 일반화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은, 억압의 상황 속에서 서발턴 발화의 특이성을 함축한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앞의 책, 133~137면.) “수년 뒤에 밝혀진 사실은 자신이 속해 있던 어떤 혁명집단의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자살했다는 것”이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하려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라제스와리 순테르 라잔, 『죽음과 서발턴』, 같은 책, 205면.)

에야 제시된다. 무엇보다 재현 불가능성을 가장 극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다. “순자 언니는 힐탑 이층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뇌파열로 죽었다”(같은 면)고 제시될 뿐, 그가 사망한 정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비가 오는구나. 모나가 인형을 안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소문난 갈보였는데 갓난 아기를 양자로 보낸 후 비만 오면 저러지. 여자 팔 자라나…….”

(…) 모나는 우산도 없이 모나가 선희 옆으로 지나갔다. 선희와 정면으로 마주쳤으나 모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모나의 가슴에 안긴 인형만 허공으로 파란 눈을 있을 뿐. 선희는 돌아서서 우두커니 모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나는 우산도 없이 비 오는 거리를 헤매 다닌다. 난 그걸 알아, 소낙비를 맞고 나면 우산이 필요 없어지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데가 없으니까.(…)56)

그런데 이 ‘말할 수 없음’의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도 짚어볼 수 있다. 약방에서 선희가 ‘옥순이(옥타리돈) 열 개’를 사는 장면에서 시작한 『밤과 요람』의 경우, 한 남성이 클럽에서 쫓겨나가는 삽화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 남성은 서사적으로 추방당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 남성의 폭력적인 형상은 선희의 회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귀한다. 과거 선희는 조각가의 모델로, 그가 회상하는 주요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그가 저항하지 못했던 성폭력 사건들로 정리된다.⁵⁷⁾ 그리고 이 과거의 삽화들은 기적소리가 가까워지는 기지촌의 ‘철길’ 앞에서, 혹은 아이를 양자로 보내고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배회하는 ‘모나’를 목격한 후에 곧바로 이어진다.

요컨대, 작가는 예술계 내 여성 종사자의 서발터니티를 기지촌이라는 서발터된 공간에 중첩하여 드러내고자 한다.⁵⁸⁾ 기지촌의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러

56) 강석경, 『밤과 요람』, 앞의 책, 99면.

57) 과거 “모델리아나의 연인, 술한 명화 속의 연인”을 꿈꾸었던 선희는 여고를 졸업하고, ‘돈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술대학의 모델로 일한다. 그런데 남성적 응시와 거세된 남성성의 축으로 조직되던 과거의 삽화는 성폭력 사건으로 마무리된다. 미대 강사의 소개로 고교 미술 교사의 모델이 된 그는 교사의 작업실에서 강간당한다.

는 이 시도는 양가적이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선희의 현재와 과거, 기지춘과 한국 사회는 동일한 구조적 억압 속에 놓인다. 하지만, 그 귀결점은 “소낙비를 맞고 나면 우산이 필요 없어지지”라는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정치적 주체화와 연대의 가능성(우산)을 기능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양자의 억압 모두를 자연화하는 위험(소낙비) 쪽으로 기운다.

이러한 귀결은 서발터니티 각각의 특이성을 성급하게 보편적 억압으로 치환하려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기지춘 정화운동’이 있었던 70년대 초반과 ‘두레방’이 개원한 1986년 등, 주체적 말하기의 시도는 기지춘 역사상 실제 있었던 저항이기도 하다.⁵⁹⁾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 기지춘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데”가 없는 이들이 다다르는 마지막 장소로 치환된다. 강석경은 기지춘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압도된 것으로 보인다.⁶⁰⁾⁶¹⁾

연속 기획처럼 읽히는 두 소설의 제목 중 ‘낮과 꿈’은 덧없어 보이는 뜨개

58) 바두리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는 또다른 이유는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의 수정본에서 강조한 바, 바두리가 “‘진정한’ 서발턴은 아니”었고 “중간 계급 출신 여성”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스피박은 “이질적인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말없음(muting)”을 지적하고, 그가 바두리의 사례에서 주목한 것은 (그의 계급적 정체성이 아니라) 그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라고 적는다. (스피박, 앞의 각주). 서발터니티는 주로 하위계급의 재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그 계급적 위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서발턴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준거 - ‘말할 수 없음’의 차원은 다른 상황과 맥락 속에서도 사유될 필요가 있다.

59) 캐서린 문, 앞의 책 및 정희진, 앞의 글 참조

60) 좀더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강석경이 기지춘을 취재했던 1980년대 초반 기지춘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듯하다. 정희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기지춘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두레방이 개원한 1986년으로 본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인 86년 당시 우리사회에서 반미나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앞의 글, 302면)

61) 아울러, 위 진술에 대한 소설 속 선희의 답도 짚어 두기로 한다. 소설의 한 대목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건 물론 나의 무지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선희는, “씨니, 소나기의 의미가 뭐지.”라는 마크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절망같은 것.” (강석경, 앞의 책, 103면)

질 같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백일몽)을 생각하게 한다. ‘밤과 요람’이라는 제목은 일견 기지촌의 실상을 은폐하는 안온한 상상처럼 읽힌다. 소설 초반부에 서술자가 선희의 시점을 빌어 “육망의 허공에서 허우적 거리는 섹색의 인종들”이 잠들어 있는 “요람”(72면)으로 기지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요람은 곧 무덤이기도 하다. 성매매 여성들이 박탈당하고 몰수당한 권리로써, 아이들의 요람.⁶²⁾ 소설 후반부에서 ‘요람’의 은유는 아이를 잃은 ‘모나’와 “나비를 따라 아기무덤”으로 올라가 이름 모를 무덤에서 발을 구르는 ‘미라’의 모습에 겹쳐진다. 공교롭게도 두 여성 중 한 여성은 낫을 놓은 채 비오는 거리를 헤매는 모습으로, 다른 한 여성 역시 유령처럼 비오는 거리로 나서는 모습으로 선희에게 목격된다. 소설의 마지막 진술이다. “흰옷을 입은 미라가 나비처럼 이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선희는 미라가 빠져나간 골목길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웬지 미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115면)

5. 문학과 증언 사이 : 이분법의 경계에 서서

이 연구는 강신재, 박완서, 강석경 소설 등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어떠한 재현의 코드에 의해 혹은, 반해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작가와 재현 대상 사이의 간격을 짚고, 서발턴 여성이 작가에 의해 어떻게 포착되는지, 동시대 한국 여성의 ‘말할 수 없음’이 그의 서발턴리티와 어떻게 절합하는지 등을 검토했다.

박완서 소설은 흔히 ‘중산층 작가’라는 레테르와 함께 분류되지만, 전쟁 당시 작가는 ‘빨갱이’와 ‘양공주’라는 동시대의 서발턴리티에 가장 근접해

62) 이후 검토할 김정자의 증언록은, 철로에서 아이를 잃은 후 기지촌 여성의 자살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자신 아이를 입양 보낸 후 자살을 시도했던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박완서 소설 중에서 일부를 우선 다뤄보았다. 그 소설들에서 박완서는 미군 부대 근처의 여성이 ‘성매매에 처해지는’ 상황을 설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성적 방종의 결과라는 관념을 탈코드화한다. 아울러 이들이 가족 내 존재라는 사실은 모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에 균열을 가하지만, 서발턴으로 추락한다는 공포와 함께 서사는 가부장제로의 편입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전쟁 중후에 발표된 강신재 소설은 박완서 소설과 같은 시기를 다루되, ‘양공주’의 서발턴니티를 전유하여 전근대적 구습에 대한 응전으로 가시화한다. 소설 속 ‘양공주’들이 견지한 젠더의식은 작가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으며, 여성이 겪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인물들의 차이는 때로 역전되거나 무화된다. 하지만 강신재 소설에서는 미군 대상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성 역시 노출되는바, 성매매가 경제적 조건에 의한 노동이라는 사실은 비가시화되거나 드러나는 순간 의문에 부딪힌다. 소설 속 인물의 진술 속에는 이 노동의 ‘죽음정치적 속성’이 이미 간파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투지로서 전유하고자 했으나 부정할 수는 없었던 서발턴니티의 일부라고 판단된다.

강석경의 기지춘 배경 소설들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비롯한 198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주도적 담론의 한 쪽 측면에 침윤된 서발턴니티 읽기(해독)의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취재에 기반한 소설은, 서발턴 여성들과 그들이 미군들과 맺는 관계성이 생명정치의 자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작가는 여성에 대한 당시의 재현 체제 속에서, 예술계 내 여성의 서발턴니티를 기지춘이라는 서발턴 공간에 중첩시키려 시도한다. 이 시도의 양가적 측면을 비롯하여, 소설 속에서 죽거나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 서발턴 여성인물은 독자를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와 마주하게 한다.

그리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글을 쓸 수 없는’ 서발턴에게 문학의 가능성은 어떻게 탐색되어야 하는가. 제도과 규범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도전의 역사는 문학의 역사나 다름없다. 1970·80

년대 노동자 수기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문학 연구에서 서발턴 담론은 다시 부상했다.⁶³⁾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문학성이란 내재적인 특질이 아니며, 배치에 의해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문학성은 문학으로 분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 문학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서 ‘Literature’의 수식어는 ‘literary’ 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차례로, 작가가 쓴 소설도 아니며 기지촌 여성이 쓴 글도 아닌, 글로 옮겨진 기지촌 여성의 말들 곧, 증언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재현하고 있는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은 16세에 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되어 평생을 기지촌에서 산 김정자(가명, 증언자)와, 21세에 기지촌 여성들을 만난 후 20여 년을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한 활동가 김현선(류은이)이 함께 펴낸 책이다. 증언록의 서문에 밝혀진, 기왕의 문헌들과 구별되는 이 증언록의 첫 번째 ‘방법’은 “정자 언니의 기지촌 경험을 시간적으로 배열한 후,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⁶⁴⁾는 것이다. 증언록은 특정 공간의 기억-이야기를 텍스트 구성의 동기로 삼고 있으며, 두 사람의 여행이 거듭되면서 김정자의 생애는 서사적 시간의 연대기 속에 반복된다.⁶⁵⁾

63) 대표적인 논의로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학회, 2011.

64) 김정자 증언,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김현선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3, 15면.

65) 책의 기술에 의하면 김정자와 김현선은, 먼저 언니 김명자가 사는 여수와,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속초를 다녀온 후 기지촌으로 출발한다. “우리의 증언여행은 파주 용주골에서 시작해 군산 아메리칸 타운에서 끝났다”는 전언처럼, 김정자가 김현선과 함께 다시 ‘겪는’ 그곳들은 ‘파주 용주골 성매매업소 집결지’, ‘광탄 기지촌’, ‘용주골 성병진료소’, ‘문산 기지촌’, ‘대춧별’, ‘동두천 홍콩 빌리지 기지촌’, ‘평택 안정리 기지촌’, ‘대구 왜관 기지촌’, ‘부산 하야리아부대 기지촌’, ‘서울 삼각지 기지촌’, ‘동두천 보산리 기지촌’, ‘의정부 만가대·뺨별 기지촌’, ‘군산 기지촌’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증언록에 펼쳐진 시간은 김정자가 미군 ‘위안부’로 끌려 다녔던 모든 곳의, 곧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촌의 역사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또한 증언록은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했던 새움터 활동의 집대성이기도 하다. 책의 류은이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수집된

권인숙의 글이 지적한 것처럼, 이 증언록에서 김정자가 다시 던지는 걸음마다에는 “반복되는 인신매매, 성병, 성폭력, 폭력, 임신과 유산, 아이와의 강제 결별, 약물중독, 주변 여성의 자살과 타살, 국가와 사회의 배신으로 점철된 경험”이 가로놓여 있다.⁶⁶⁾ 따라서 이 책의 일차적인 ‘계몽’ 효과는 “둥둥 천 양갈보들아! 니네들보고 몸 팔으라 그랬나? 이 소리 나와, 니네들이 좋아서 했지!(139면)라는 사무치는 모욕들에, 미군 ‘위안부’는 군사주의 아래의 성노예제이며, 그 제도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묵인, 방조해왔다는 사실을 설득해내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양국 정부의 책임을 심문하는 서발턴 증언자와, 스피박이 말한 바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엮은이는, 국가폭력의 차원에서 기지춘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한다. 증언록을 만든 이들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숨겨진 진실”들의 가장 분명한 지향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제목과 내용에 뚜렷이 부각된 ‘미군 위안부’라는 호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증언록의 저자(들)은 증언자의 경험이 군사주의 성노예 피해자의 역사성 속에 인식되고, 또 그 속에서 그 의미가 묻어져야 함을 환기한다.

그런데 이 글이 보기에 이 책의 주목할 만한 다른 특징은, 그간의 기지춘 성매매 연구 성과로 수렴되어온 위와 같은 시안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강력한 정동이다. 최근 이 증언록의 텍스트화된 내용을 ‘약물 중독’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동 연구가 제출되었지만,⁶⁷⁾ 이 글에서 좀더 주목하고 싶은 차원은 김정자가 다시 장소와 마주하여 기억-이미지들과 접속하고 그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신문자료를 비롯하여 김정자의 증언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정보들을 함께 배치하여, 독자가 역사·사회적 맥락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6) 책의 추천사를 쓴 권인숙은 우리가 “늘 다큐멘터리, 논문, 소설, 자료집에서 지식인이 인터뷰나 참여관찰, 촬영을 하여 자신들의 시각으로 충분히 거르고 다듬은 내용만을 접했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내용은, 위의 책, 5~6면.

67)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 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 ‘위안’하는 주체의 (비)일상과 정동 정치』, 『역사문제연구』 4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10.

경험을 현재화할 때 생산되는 정동이다. 예컨대, 김정자가 겪은 1960년대 중반의 나날들은 공식적으로는 ‘파주군 내 8개의 기지촌과 그 기지촌으로 외출하는 미군의 하루 평균 숫자 1만 1500명’(경기도 ‘유엔군 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수립’)이라는 숫자들로 남겨질 뿐이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는 한 ‘증언 여행’에서 김정자는, 파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미군들을 실어 날랐던 옛 미군 셔틀버스 정류장, ‘조마마상 클럽’이 있던 자리에 신축된 주택과 그 인근에 있었던 미군 전용 클럽, ‘조마마상 클럽’을 둘러싼 기지촌의 포주집들을 차례로 거쳐, 자신이 감금돼 구타당했던 옛 ‘포주집’의 문간방 창문 앞에 선다. “그 창문 앞에서 그녀가 무너져 내렸다.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을 했다.”(90면)

그의 고통은 함께 대화하며 걷는 김현선의 정동으로 전이되고, 끝내는 책 바깥의 독자의 정동으로 확산된다. 그 정동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골목들, 허물어져가는 슬레이트 지붕들, 마치 입을 봉쇄하는 듯한 녹슨 철창, 그리고 김정자와 김현선의 끊어지고 부서지는 말들, 통곡들, 고통에 꺾인 몸의 말들과, 페이지마다 함께 편집된 당시의 기사자료, 후일의 학술자료가 서로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순간의 정동적 힘은, 그 어떤 지식인의 재현들, 논문이나 이론서, 연구서 등을 압도하는 실천적 호소력으로 육박한다.

호느낌이 점점 커져갔다. 김정자는 누가 들을까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결국 골목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녀를 안고 울었다.

- 정: 아아…… 흑흑…… 흑흑…… 아이구우…… 아이구우…….

- 현: 언니…… 괜찮아? 흑흑…….

- 정: 아아아…… 가자…… 얼른 가자…….

- 현: 어어.

- 정: 난 여기 있기 싫어…… 아흑흑…… 아흑흑…….

- 현: 흑흑흑흑

- 정: 왜 나 살던 데는 다 안 없어졌어? 왜? 으으흫. 나를 안 잊었나봐……
현선아…….
- 현: 언니……. 어떡해…….
- 정: 가슴 아파 죽겠어. 나 많이 죄졌나봐, 현선아……. 으흫흫, 으흫흫.
- 현: 으으. (68)

증언록을 통해 본 김정자는, 담대한 용기와 의지,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과거와 맞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신을 포함한 기지춘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의 행위자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이다. 그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발하고 책임을 물을 때, 그는 더이상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증언록을, 서발턴의 자기-재현으로 간단히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 지금 이 증언록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 그는 누구인가?

예상되다시피, 어떤 목적지들에 가기까지 증언자는 주저하고 망설이며, 기억의 장소를 재확인하고 더이상 말을 잊지 못한다. 증언은 수시로 중단되고, 여러 차례 지연된다. 특히 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사정과, 그 이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날들을 술회하는 김정자의 고통은 참혹하다. 그는 애초 증언여행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날들의 기억이 있는 ‘대춧별’로 향하는 것을 망설였고, 그 장소에서 서둘러 돌아와서도 통곡은 이어진다. 과거의 바로 그 시점에서, 서발턴의 말은 들려지지 않았고 그 말들이 말이 되기까지 반세기의 침묵이 있어야 했다.

예컨대, “문산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눈에 보이는 야산들이 모두 옛 훈련장으로 보인다며 몸서리를 쳤다”는 김현선의 전언처럼, 증언록으로 옮겨진 말들의 주인은 차라리 평생에 걸친 한 인간의 고통, 그의 트라우마처럼 읽힌다. “이거 두 번만 하면 죽겠다”던 증언자의 고통을 마치 새기기라도 하는 듯, 증언록 마지막 장의 부제는 ‘유언’이다. 그는 잔모하메드의 표현의 빌리면 “말하기와 죽기 사이”에 있다.⁶⁹⁾

68) 김정자, 앞의 책, 125면.

서발턴 재현이라는 문제의식은 종종 주체성(행위자성)에 대한 강조로 귀결된다. 서발턴이 서발턴티티를 해소하는 방향이 정치적 실천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주체화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에 대한 강조는 말하지 못해온 슬한 역사들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만 치환할 가능성이 있다. 서발턴티티가 해독할 수 없는 문제의 다른 이름이라면, 그 문제의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다. 김정자 증언록을 통해 생각해 본 서발턴 여성의 말하기는, 사후적인 ‘되기’의 방식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뚫고 나오는 (불)가능한 발화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작업이라는 수식어, 한계를 표명하는 동시에 그 존재 의의와 성취를 각인시키는 수식어는, 비단 문학만의 것은 아니다. 서발턴 여성의 고통이 말들이 되는 시간이 있기까지에는 문학이 통과한 시간들도 놓여 있거니와, 증언과 문학은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조우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신재, 『회화』, 계몽사, 1958.
 _____, 『여정』, 중앙문화사, 1959.
 _____, 『단편선집』 강신재 대표작전집 1, 삼익출판사, 1974.
 강석경, 『밤과 요람』, 민음사, 1983.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김현선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3.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완서 단편전집 1, 문학동네, 1999.
 _____, 『배반의 여름』, 박완서 단편전집 2, 문학동네, 1999.
 정연희, 『천팔라 이야기』, 『새벽』 30, 1960. 2.
 최은영, 『뫼』, 미메시스, 2018.

69) 압둘 R. 잔모하메드, 『말하기와 죽기 사이에서 - 미국 노예제의 맥락에서 출현한 서발턴에게 진요한 몇 가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2. 논문 및 단행본

- 『강석경의 『낮과 꿈』』, 중앙일보, 1983. 6. 23.
- 강석경,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29) - 소설가 강석경』, 신문, 2002. 10. 3.
-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춘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7~54면
- 김미현, 『비누 냄새와 점액질 사이의 거리』, 『짧은 느티나무: 강신재 소설선』, 문학과 지성사, 2007.
-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1950~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3, 2003, 121~156면.
-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 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 ‘위안’하는 주체의 (비)일상과 정동 정치』, 『역사문제연구』 4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 129~166면.
-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 여성문학학회, 2010, 187~219면.
- _____,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여성문학학회, 2003, 158~179면.
- 김주희,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일레인 H.김 · 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삼인, 2001.
- 나보령, 『강신재 문학 연구 - 여성과 전쟁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3.
- 문동환, 『두레방 여인들 - 기지춘 여인들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두레방 신학 30년』, 삼인, 2017.
- 박선애, 『기지춘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279~300면.
- 박정미, 『잊혀진 자들의 투쟁 - 한국 성판매여성들의 저항의 역사』, 『역사비평』, 2017, 407~435면.
- _____, 『한국 기지춘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집 2호, 2015, 1~33면.
- 손윤권, 『기지춘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51~81면.

- 심진경, 「질문하기 그리고 소설 쓰기」, 『밤과 요람』 해설, 책세상, 2008.
- _____,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55~77면.
- 신필식, 「한국 해외입양 아동과 친생모의 이산 과정, 그리고 젠더화 된 고통 - 다섯 입양인에 관한 수기와 회고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8권 2호, 2018, 101~147면.
-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 아내들 이야기』, 임옥희 옮김, 삼인, 2007.
- 오은엽, 「강신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양공주’의 형상화 연구 - 「관용」, 「해결책」, 「해방촌 가는 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61~297면.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술의 양상과 변화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147~185면.
-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5~48면.
- _____,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4(3), 2008, 77~109면.
- 이유혁, 「스피박 다시 읽기 - 서발턴 논의의 재고와 이론적 적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원 광주학연구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9, 25~39면.
-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미국의 군사주의 성노동·이주노동』,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면.
-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86~98」,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9.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중문학사연구』 47, 민중문학사학회, 2011, 224~254면.
- 한경희,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 -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무』(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447~488면.

- 모리스, 로절린드 C. 위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 문승숙·혼, 마리아 위음, 『오버 데어-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 인료, 신시아,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권인숙 옮김, 청년사, 2011.
- 문, 캐서린 H.S,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Abstract

Subaltern woman, between testimony and literature

– Focusing on the 'Comfort Women' in U.S. Military Bases represented
in Korean female narrative –

Cha, Mi-ryeong*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of women in the U.S. Military Bases prostitution in Korean female narrative, and in the context of the representation of subaltern. Focusing on the fictions of Kang Shin-jae, Park Wan-seo and Kang Sok-kyong, review the characters and events of the narrative to see what codes the narrative was organized by. This study explores the ga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presented object, and considers what it means. But this study is far from the reduction theory that the writer's class position defines the limits of his work. Also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ssible not to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author. It is not detected by dichotomy whether she is an agent or a victim. It contains the middle ground of the agent's character and victim's character. Testimony and literature encounter at the point of suffering to go beyond its impossibility.

Key Words: subaltern, subalternity, 'Comfort Women' in U.S. Military Bases, testimony, representation

*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GIST)

<필자소개>

이름: 차미령

소속: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전자우편: mrcha@gist.ac.kr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21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7일